이주의 경험, 현대 도예로 구현하다

ACC '길 위에 도자' 전
18일~7월28일, 복합전시 6관
스티븐 영 리·세오 등 4명 참여
조선대 미대서 일부 작품 창작

Immigration of Ceramics

도자기를 일컬어 불의 예술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도자기는 불의 예술을 뛰어넘는 신비한 매력을 갖고 있다. 흙으로 빚은 그릇은 불과 시간, 바람이 부조를 해야 온전한 작품으로 탄생된다.

우리나라는 찬란한 도자의 역사를 이어왔다. 우리나라만의 전통과 정서, 문양이 깃든 도자기는 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도자기는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도 그 나름의 문화가 있다. 문화의 이동, 문화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주의 경험을 가진 작가들이 만든 도자기는 어떤 분위기가 날까. 특히 태어난 곳과 국적이 다른 작가가 만드는 도자기는 빛깔과 모형 등에서 우리의 전통 도자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에서 이주 작가들의 도자기 전시가 열려 화제다.

'길 위에 도자'(18일~7월28일, 복합전시 6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주제가 말해주듯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개막식은 18일)

린다 응우옌 로페즈 작
'금빛 돌이 박힌 미드나잇 허스키'

이번 전시는 모두 4명 작가가 출품했다.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영 리를 비롯해 베트남-멕시코계 미국인 린다 응우옌 로페즈, 한국계 미국인 세오, 캄보디아계 미국인 에이미 리 샌포드 등이다. 이들은 양식적 접근보다 이동과 이주라는 새로운 틀로 현대 도예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구현한다. 이들 작가들은 조선대 미대에서 일부 작품을 창·제작했다.

조은영 주무관은 "이번 전시는 '디아스포라'로 대변되는 이주 경험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라며 "본질적으로 인류가 횡단하고 이동하면서 문화를 일궈왔던 시각에 비춰보면 도자기를 모티브로 한 전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시는 아시아를 주제로 한 담론을 확장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아시아 네트워크'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작가들이 지향하는 정체성 또는 각 나라의 특성 등이 발현된 다채로운 도자기를 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계 이민 2세인 스티븐 영은 그동안 장소와 소속에 대한 물음을 해왔다. 문화적 흐름이나 발생에 대한 근원적인 관심은 여느 작가와는 다른 이색적인 작품을 창작하는 동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는 균형과 조화를 미덕으로 여기는 전통 도자에 대한 관점을 과감히 탈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형태가 찌그러진 도자의 경우 깨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스티븐 영은 그 같은 사고를 전복시킨다. 오히려 어그러진 형태를 절묘하게 지렛대 삼아 새로운 작품으로 전이시킨다. '부조화의 조화'라고 명명해도 될 것 같다. 형태의 불완전성, 충돌하는 이미지의 이질성은 현대도자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에이미 리 샌포드 작 '무한한 호, 문화전당로'

세오는 인천에서 태어나 생후 9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자연스레 그의 창작에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의 전통 다완 기형을 끌어들이거나 고려청자 유약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연유다. 창작을 위해 자연에 관심을 두는 그는 식물, 꽃의 조형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Goldfish Ponds', 'Water Poppy'는 꽃, 연못 등을 주제로 표현한 작품이며 특히 신작을 비롯해 다수의 작품이 광주 식물에서 영감을 얻었다.

세오 작가의 도자기 창작 장면. 〈ACC 제공〉

그는 "이번 '도자 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꽃과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꽃을 매개로 작업했다"며 "태어난 곳의 흙으로 만든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설레면서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린다 응우옌 로페즈는 어린 시절의 이민 경험으로 사소하고 주변적인 사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먼지떨이, 대걸레 등 일견 사소해 보이는 사물 등을 모티브로 창작을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일상의 주변의 사물이나 자연을 모티브로 작품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며 "다양한 사물들을 의인화 한 도자 작업에 흥미을 느낀다"고 밝혔다.

스티븐 영 리 작 '독수리구름문양매병'

마지막으로 에이미 리 샌포드는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도예로 구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자 관련 퍼포먼스 영상과 작품을 선보인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이주의 경험이 있는 작가들의 도자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이라"며 "그들의 손끝에서 한국의 흙이 어떻게 빚어지고 어떤 형상과 분위기를 피워낼지 자못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블루스 록' 기타와 드럼의 강렬한 사운드에 빠져든다

카페뮤지엄CM 26일 콘서트
밴드 '양산동 호랭이' 출연

대중음악의 하나로 블루스 코드(화음)와 스케일(음계)을 사용해 즉흥적 연주를 펼치는 록 장르를 '블루스 록'(Blues rock)이라고 부른다. 1960년대 후반 영국에서 록의 한 형태로 발생했으며 '존 메이올&더 블루스브레이커즈 밴드', 털사 사운드의 창시자 '제이 제이 케일'을 비롯해 기타 사운드의 선구자 '로이 뷰캐넌' 등이 이 분야의 대가로 꼽힌다.

카페뮤지엄CM(동구 문화전당로 29-1·CM)이 'FRIDAY LIVE CONCERT'를 오는 26일 오후 8시 CM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호랑이처럼 자신들 만의 강인한 음악적 색채를 지향하는 블루지 록 밴드 '양산동 호랭이'가 출연,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 CM에서 블루스의 거장 스티비 레이 본의 대표곡 'hide away', 'So excited', 'Pride and joy' 등으로 관객들을 만난 적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전에 들을 수 없던 색다른 곡들로 레퍼토리를 꾸렸다.

기타리스트들이 꼽는 '80년대의 하이라이트 기타곡'으로 자주 언급되는 스티비 레이 본의 '스커틀 버틴'으로 막을 연다. 이어 '스윗 홈 시카고', 로이 호킨스가 1951년 발표해 히트를 거뒀던 곡을 리메이크한 B.B킹의 'Thrill is gone' 등도 울려 퍼진다.

'교차로', '골목길', '내 사랑의 고속도로'는 물론 '부두 차일드' 등도 들을 수 있다. 개성 있는 제목으로 이목을 끄는 자작곡 '보노보노는 귀엽기라도 하지'를 비롯해 잘 알려진 김건모 곡 '서울의 달'도 블루지한 멜로디로 재해석된다.

양산동호랭이 드러머 사군은 "블루스로 가득 채운 이번 공연은 기타의 전설 '스티브 레이 본'과 비비킹의 넘버들, 양산동호랭이 양희범의 자작곡 등으로 채워나갈 예정이다"며 "강렬한 블루스 록으로 일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드러머 '사군'

보컬 및 기타 양희범

관람료 5000원(1인 1주문 필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 미래상' 첫 수상자에 김아영 작가 선정

작품 제작비 3억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시를 위한 작품 제작비 3억원을 제공받는 'ACC 미래상' 수상자로 김아영 작가가 선정됐다. 김 작가에게는 프로덕션 인프라 지원을 비롯해 해외 전시 추진 등 혜택이 제공된다.

김 작가는 그동안 역사를 비롯해 정치, 지정학 등 근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영상, 설치미술 등 다채로운 작품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ACC(전장장 이강현)가 올해 제정한 'ACC 미래상'은 미래가치와 가능성을 확장한 생산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융·복합 예술 분야에 대한 수상제도다. 시상은 격년제로 운영된다. 김 작가는 오는 8월 복합전시 1관(1,560㎡ 규모)을 극대화하는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ACC Future Prize'라는 의미를 지닌 ACC미래상은 작가에게는 창작의 추동과 확장의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혜미 학예사는 "그동안 김 작가는 다양한 경계를 넘어 세계와 존재에 대한 관심을 실재와 환영, 미래의 도상들을 매개로 보여주는 의미있는 작업을 구현해왔다"며 "현재 작가는베니스비엔날레참석차 이탈리아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김아영 작가

ACC는 지난해 국내외 20여명의전문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4명을 1차 선정했으며,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의과정을 거쳤다. 'ACC 미래상 2024' 심사위원회는 "중첩적이고 강력한 서사에 다층적인 시각적 요소를 집적시키는 김 작가의 독특한 작업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미래주의적 세계관이 담긴 가상의 시나리오와 AI가 선사하는 열린 결말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평했다.

김 작가는 광주비엔날레, 국립현대미술관, 바젤 등 다수의 국내 국외 전시에 참여했다. 올해 MoMA 뉴욕현대미술관 전시가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빛고을미술대전 빛고을대상에 김보미 작가 '컴포즈'

한국화 정당철·서양화 김나영 대상
12개 부문 703점 입상

최근 막을 내린 빛고을미술대전에서 김보미 작가가 '컴포즈'로 빛고을대상(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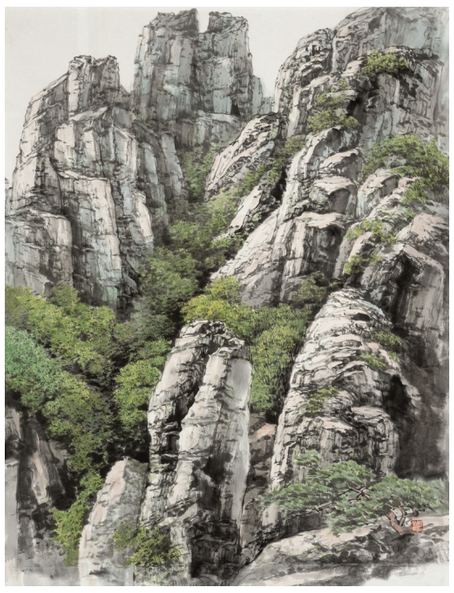
대상은 한국화 부문 정당철 작가의 '대둔산 풍경', 문인화 부문 김태호 작가의 '아침향연', 서양화 부문 김나영 작가의 '초대', 서예 부문 조종래 작가의 '이백시', 민화 부분 이화영 작가의 '장인과 손녀', 공예 부문 강향순 작가의 '달항아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제1회 빛고을미술대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미술대전은 12개 부문에 걸쳐 1133점 작품이 응모됐다. 전체 입상작은 빛고을대상 1점, 대상 6점, 최우수상 10점, 우수상 25점, 장려상 70점, 특선 298점, 입선 289점 등 모두 703점이 입상했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전효진 홍보담당은 "이번 미술대전은 각 분야별 다양한 장르의 개성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며 "서양화 빛고을 대상 작품은 현대적 조형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빛고을대상 김보미 '컴포즈'



한국화 대상 정당철 '대둔산 풍경'

시상식은 17일 오후 3시 광주예총 백련갤러리에서 열리며, 입상작 전시는 17일부터 20일까지 광주예총갤러리와 지호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서예, 문인화, 캘리그라피 작품이 광주예총 백현갤러리와 지호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빛고을미술대전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한국예술종합교육원이 공동 주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진도 자연 지키는 '동물 반장'은 누구?

국립남도국악원, 20일 아동극 무대…소리하나 출연

진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장 후보'들의 공약이 이어진다. 사슴, 곰, 토끼,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들은 후보로 출마해 저마다 반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과연 어떤 동물이 '자연 보호'를 이끌어 나갈까.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은 오는 20일 국악원 대극장 진악당(전남 진도)에서 아동극 '내가 반장이 된다면'을 펼친다. 예술창작집단 소리하나가 출연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레퍼토리를 보여줄 예정이다.

진도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관광객들로 인해 더러워진 진도를 혼자 청소하지만 쉽지 않다. 고양이는 동물 친구들에게 진도를 깨끗하게 지켜나갈 '반장' 선거를 제안하는 이야기.

한편 창작집단 소리하나는 전통문화·예술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창·제작하는 단체다. 2021년 창단했으며 '토끼, 용궁 구출 대작전', '고양이 캠핑장-아리아리 아라리요!' 등을 선보여 왔다.

공연 전후로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오산초(고군면)을 거쳐 회동(신비의 바닷길) 등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제공된다. 관객들을 위해 11월까지 '스탬프 쿠폰 이벤트'도 진행하며 관람객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준비돼 있다.

예술창작집단 소리하나가 아동극 '내가 반장이 된다면'을 선보이는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이번 공연은 진도의 자연을 모티브로 만든 연극이라 의미가 남다르다"며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은 국악원은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공연,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문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무료 공연. 국악원 누리집 또는 전화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